부처님이 하늘 위에…'드론불' 선보여

日정토종 류간지 아미타삼존상 드론불 공개

불교공예가와 협업 프로젝트 '아미타내영' 근간해 제작중 23불 부양시키는 것이 목표

박영빈 객원기자



드론을 타고 공중에 날아오른 아미타불상. 사진출처=미우라 요잔 트위터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타고 날아오르는 불상이 등장했다. 젊은 불교공예가들이 모여 시도한 불상의 현대적인 모습에 일본 SNS가 뜨겁다. 6월 9일, 일본 '야후재팬 뉴스', '마이나비 뉴스' 등의 언론들은 하늘을 나는 불상 '드론불'에 대해 보도했다.

교토의 유서 깊은 정토종 사찰 류간지(龍岸寺)는 최근 3구의 드론불을 공개했다. 구름모양의 장식을 단 3개의 소형드론 위에 각각 부착된 아미타삼존상은 큰 요동 없이 안정적으로 법당의 허공을 떠다녔다. 일본의 젊은 불교공예가들과 스님들이 모여 결성한 불교계 팝유닛 '부츠부츠부(佛佛部)'가 진행한 프로젝트 '드론불'이 완성된 것이다.

드론불 프로젝트를 지휘한 불상조각가 미우라 요잔씨는 "2018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드디어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미우라씨는 "불경에는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께서 임종하는 수행자를 맞이하러 온다는 '아미타내영(阿彌陀來迎)'이 있다. 이 주제를 표현하려 했다"며 드론불 모티프를 설명했다.

미우라씨는 "역대 많은 예술가가 공중에 뜬 불상을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기술로는 실제 불상을 공중에 띄울 수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구름을 탄 모습의 불상을 법당 높은 곳에 걸어 두거나, 높은 단상 위에 봉안했다. '만약 옛날의 예술가가 '공중에 뜬 불상'을 현대에 생각했다면 어땠을까?'는 질문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드론불은 2018년 처음 날아올랐다. 첫 시도에선 지금보다 더 큰 드론과 불상을 이용해서 아미타삼존을 띄웠다. 당시 SNS를 통해 공개된 모습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이에 고무된 부츠부츠부의 공예가들은 "최종적으론 아미타내영도에 나오는, 아미타불을 포함함 26구의 불상을 모두 하늘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드론의 가격과 크기, 불상의 중량 등이었다.

첫 시도에 이어서 드론도 발전을 거듭해 작은 소형 드론이 저렴한 가격에 상용화되면서 한 자리에 26구의 불상을 부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불상은 가벼운 나무로 조성하고 날개에는 구름모양의 장식을 더해 실제 구름을 타고 부처님이 오시는 듯한 분위기를 냈다. 미우라씨는 "현재 남은 23구의 불상을 한 분씩 조성 중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26개의 드론을 한 번에 떠올리는 것"이라며 드론과 프로그래밍에 밝은 참여자를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 4일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처음 영상이 공개된 트위터를 기준으로 6월 15일 기준 조회수는 63만회를 넘겼으며, 1만 4천회 이상의 게시물 공유가 이뤄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자마자 예경하지 않을 수 없다", "꼭 26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불상이라면 집에 모시고 싶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들의 반응에는 감탄과 응원뿐만 아니라 불상이 날아오르는 초현실적인 모습이 SF영화의 한 장면 같다,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평가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美, 밀수된 캄보디아 불교유물 반환

다수의 불상 포함, 국제 도굴범들에 의해 반출돼



캄보디아로 반환된 27점의 문화재. 사진출처=CNN

지난 6월 11일 '로이터통신'과 'CNN'은 캄보디아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27점의 문화재가 미국에서 환수됐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뉴욕 주정부는 불상과 보살상을 포함한 27점의 유물을 11일 공식적으로 캄보디아로 반환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캄보디아는 내전과 불안정한 정국 속에 문화재 밀매업자들의 탐욕으로 오랜 시간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번에 환수된 27점의 유물들은 모두 캄보디아에 중요한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다. 이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반환함으로써 현대와 고대의 믿음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되찾았다"며 반환의의를 전했다.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 역시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 27점의 유물은 고대 크메르 선조들의 영혼이며, 전쟁 중 잃어버린 캄보디아의 정신이다. 캄보디아 국민과 세계에 양국 정부 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결과를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모든 인류, 특히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인 문화재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약 380만 달러(한화 약 4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이 유물들은 고대 크메르 제국시대에 조성된 청동 불상들과 소조 불상을 비롯하여, 시바신과 나가(naga)조각상과 같은 힌두교 신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야불모(般若佛母)와 금강살타(金剛薩埵)와 같은 대승불교에서 보이는 불상들도 포함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27개 유물 중 24개가 미술품 밀수업자 '수바시 카푸어'와 뉴욕 장물아비인 '낸시 와이너'의 공모로 반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카푸어는 밀수 혐의로 공동 피고인 7명과 함께 2019년 뉴욕에서 기소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재판을 위해 카푸어의 미국 송환을 위한 서류를 인도에 전달한 바 있다.

당국은 카푸어와 공모자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1억 4천 3백만 달러 이상의 고미술품을 불법소유, 수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총 2500여 점의 유물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너는 3점의 유물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도난당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물을 구입, 밀수했다. 와이너는 이 유물들의 국적이나 원소장처를 세탁하여 뉴욕에 소재한 자신의 갤러리에서 판매해 왔다고 자백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얀마, 군용 비행기 추락으로 스님 사망

열악한 항공편과 악천후가 주원인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지역에 추락한 군 수송기의 잔해. 사진출처 = AP통신

6월 10일 태국 언론지 '방콕 포스트'는 미얀마 군 소속 비행기가 추락해, 스님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교통편이 열악한 미얀마는 군 소속 수송기를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항공사업이 일부 이용되고 있다. 이번 사고역시 군 수송기에 탑승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스님이 희생자에 포함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희생자인 스님 중 한 명은 장로로 존경받는 스님이었으며, 스님을 마중하러 나온 불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사고 직후 "만달레이 지역의 사찰 개원식에 참여하기 위해 스님 2명, 동행한 불자 6명, 군인 6명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도착지인 핀우린 공항 인근 제철 공장에서 400m 떨어진 지점에서 통신이 두절됐다. 악천후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탑승자 중 2명만이 생존해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생존자 2명은 군인이며, 그 중 한 명은 조종사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항공분야가 낙후되어 있고, 긴 우기로 비행에 적합한 날씨가 적은 미얀마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가 잦은 편이다.

2015년에는 악천후로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탈, 승객 1명과 지상에 있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2017년에는 안다만해에서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22명 전원이 사망한 미얀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항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미얀마 사회는 낙후된 항공기를 억지로 운용한 군부를 비판했으나 당시 군부는 공식적으로 악천후의 영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1300년 전의 불상, 박물관서 재회

오츠시립박물관 6월 9일 나라시대 불상 공개



새롭게 발견된 대세지보살상(좌)과 신코지에 봉안중인 관세음보살상(우). 사진출처=니혼 게이자이 신문

1300년 전 아미타삼존으로 조성된 불상들이 기적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6월 9일 일본의 '교토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의 주요언론들은 한 자리에 다시 모인 두 불상의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사가(滋賀)현에 소재한 오츠시립박물관은 9일 박물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라시대에 삼존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중 두 구의 협시보살상이 1300년 만에 다시 재회했다"고 발표했다.

박물관 측은 "오츠시에 소재한 신코지(眞光寺)가 소장중인 나라시대의 금동관세음보살입상과 쌍을 이루는 금동대세지보살상을 도쿄의 개인 소장가가 소장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세지보살상의 발견으로 두 불상이 아미타불로 추정되는 본존을 협시하던 불상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흩어졌던 한 쌍의 고대불상이 다시금 재회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로, 소장자의 동의하에 27일까지 두 불상은 박물관의 특별전시실에서 함께 공개된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테라지마 덴진 학예원은 "언제 헤어졌는지조차 불명인 두 불상이 1300여 년 만에 다시금 재회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새롭게 발견된 대세지보살상은 높이 26.8cm, 상반신은 나신에 영락을 걸치고, 하반신에는 군(裙)을 두르고 있다. 보관에는 정병이 뚜렷하게 새겨져 대세지보살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박물관 측은 "도쿄의 개인소장가가 지난 3월 '신코지의 관음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 오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